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창의적 사고 역량 우수상

정○선(정보통신공학과)

성결스터디

내 용

1. <성결스터디>에 신청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처음 만난 5명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내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수가 아니라면 쏙쏙 피해 다닐 정도로 학교 모든 행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공과대학 특성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시간표도 비슷했기 때문에 매 학기 공강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다 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채플을 가던 중, 기념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결스터디 포스터를 발견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 스터디를 하면 개인 당 3만원씩의 상품권 지원’까지 해주는 학교 내 놀라운 행사를 발견하고, 무기력하고 소심했던 5명이 처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합해 지원한 학교 내 활동이었습니다.

2. <성결스터디> 참여 경험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과정, 참여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저희 친구들 중 그나마 제일 성격이 활발한 저를 팀장으로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공강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토크를 하며 학교 주변 모든 카페를 다니며 수다를 떨거나 빈 강의실에서 다 같이 옆드려 잠을 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결스터디를 시작한 후, 매 공강 시간마다 모여 2주간 4시간씩, 한 학기동안 토익 800점,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스터디라는 목표를 두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안 모여서 조용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목표에 대한 정보(토익, 컴활 기출문제)들을 공유하고, 주중 혼자 풀지 못하고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수다스러웠던 기존의 단체 채팅 방에서는 매주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걷는 형식으로 규율을 세웠습니다. 조금은 엄격할 수 있지만 스터디 모임 내의 규칙을 세움으로서 더 나은 학업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와 비교해보며 약 1.5년 남은 취업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진중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결스터디는 최대한 교내에서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학교 다른 학우들에게도 학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 교내 장소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학업에도 그다지 열심이 없던 친구들이라 3학년이 되어서도

학술정보관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스터디 장소를 다양하게 찾아보니 학술정보관이 개인공부 뿐 아니라 단체 스터디 하기에 적합한 공간임을 알아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술정보관 6층 카페테리아에서 주로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2층 스터디룸에서도 공부분위기를 조성하며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 내 이렇게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층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3. <성결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및 성과

스터디 시간이 학교 시험기간과 겹쳤을 경우, 같은 학과여서 같은 과목의 시험을 준비하던 동기들이었기에,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와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이지만, <성결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던 암묵의 같은 학과 학점 경쟁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로 전공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며 배가 된 지식으로 공부할 수 있음이 좋았습니다.

저희 팀 스터디의 목표였던 토익시험(영어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검정 시험(전공 관련 자격증)을 학기 중이나 방학 때에도 준비하려면 개인의 시작할 용기와 끝까지 이루어 낼 끈기가 필요했는데 스터디를 통해 자격증 공부 시발점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짧은 10주간의 스터디 동안 자격증 2개의 결과를 보일 수는 없었지만, 시작점을 만들어서 현재에도 팀원 모두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상태이고, 2019년이 마무리 될 때 즈음 겨울방학에는 모두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업 준비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독려해가며 준비할 수 있음에 좋았습니다.

4. <성결스터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일단 이렇게 공부하면 상품권까지 지원해주는 학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결스터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념관이나 성결관, 중생관 등 여러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포스터가 게시되어있지만,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고, 포스터의 가시성이 높지 않아, 학생들이 읽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의 대한 홍보를 학생들의 요즘 눈높이의 맞추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 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자 홍보 알림, 혹은 APP을 이용한 홍보가 학과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학교 내 복도에 게시되어있는 포스터들 보다 훨씬 더 높은 홍보성을 내 비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학교 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Facebook app 내 '성결대학교 대나무숲' 혹은, app Everytime 내 자유게시판, 정보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들 마다 이러한 App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해준다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율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성결스터디>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스스로 목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단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면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한 보상도 없고, 분위기가 흐려져서 스터디를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스터디를 진행시켜준다면 10주 동안 계획적으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써서 확인도 받을 수 있고, 성결스터디 자체의 목표가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큰 이점이 됩니다. 또한 교내에서 스터디를 진행해야한다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학업분위기 조성에도 큰 힘이 됩니다. 빈 강의실이나, 건물 밖 벤치, 학술정보관 등 교내 어떤 장소에서든지 단체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시험시간 외에도 공부하는 모습을 비추어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학과 내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학과 친구들을 소집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과에서 전달되는 정보(자격증, 전공지식)들을 공유하면서 전공 외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